

# 그림 속에 녹아있는 화가의 철학과 시대상을 보라

## 이성의 눈으로 명화와 마주하다

수익 지음

반 고흐의 '붓꽃'과 모네의 '수련' 중 어떤 그림이 더 아름다울까. 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송나라 위종의 '화조화'보다 뛰어난가.

이제는 만큼 보이고, 감동을 받는다.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에도 이 말은 통용된다. 좋은 그림을 결정 짓는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눈으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의 저자 수잉의 '이성의 눈으로 명화와 마주하다'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시각으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저자는 빙산에 예로 들어 이성적인 그림 보기를 설명한다. 명화를 볼 땐 떠오른 빙



## 명화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수수께끼

작가의 영혼·시대의 속삭임이 아름다워

산의 일각에 비유한다면 해수면은 화가 본인과 그가 살던 사회를 가리키고, 해수면 밑에 가려진 거대한 빙산은 사회와 예술에 소리 없이 스며든 철학이라는 것이다.

흔히, 회화기법을 통해 그림을 감상하지만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철학적·사회적 사상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

저자는 두초 디 부오네테나(1255~1319년)와 시모네 마르티니(1284~1344년)의 작품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 사도의 모습을 주제로 그린 이들의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 부

오네테나의 작품은 시에나 대성당에 그려져 비범한 자세를 뽐내는 전형적인 종교 벽화다. 반면, 마르티니가 같은 주제로 그린 그림은 시청 대화의실에 그려져 세속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다.

누가 무슨 의도로 작품을 의뢰했느냐에 따라 그림의 색채와 분위기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주제가 같더라도 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되기도 한다.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를 주제로 소도마, 루벤스, 푸생, 세바스티아노 리치, 피에트로 다 코르토나, 작자 미상의 그림까지 모두 여섯 점의 그림을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화가의 철학과 생각을 읽고, 당시 시대상을 이해하는 것도 그림을 제대

로 보는 방법이다. 저자는 이를 '이성의 눈'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명화 속에는 아름다움과 수수께끼가 녹아 있고 화가의 영혼과 시대의 속삭임이 작품을 더 아름답게 한다"고 설명한다.

책은 '영혼의 무게' '이상도시 : 하나님 이 된 화가' 등 사상이나 종교 등의 주제를 통해 그림을 들여다본다.

가령, '괴연 영혼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림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보여준다.

또 그림에 숨어 있는 의미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한편 저자 수잉은 '남란음악사전' '당시의 유희주의' 등의 책을 낸 중국 인기 작가다.

〈시그마북스·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두초 디 부오네테나의 '마에스타:마리아와 아기예수, 천사들, 사도의 모습' (위)와 시모네 마르티니의 '마에스타: 도시의 수호성인으로 왕좌에 앉아 있는 성모와 주위에 둘러선 성인들' (시그마북스 제공)

## 시대의 어른 채현국

###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쓴맛이 사는 맛

채현국 구술·정운현 기록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 두어라."

2013년 한 일간지에 실린 과격적인 제목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봐주지 마라.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어라. 너희들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까먹하면 저 꼴 되니 봐주면 안된다."

봐주지 마라

저 모양으로 사는 노인들

분노하고 저항하라

자기 자신도 노인인 노인을 향해 쓴 소리를 내뱉은 이는 채현국(80) 효암학원 이사장이다. '거리의 철학자'로 불리는 그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탄광 사업을 이어받아 승승장구, 한 때 개인 소득세 납부액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

1973년 직원들에게 전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업을 정리한 그는 군사정권 시절 핍박받던 민주화 인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활동자



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의 삶의 철학이 담긴 '쓴 맛이 사는 맛'이 출간됐다. 채현국이 구술하고 기자

출신으로 친일반민족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정운현이 기록한 책이다.

1부 '너희들은 저렇게 되지 마라'에는 돈과 재산에 대한 신념 등이 담겼다. 돈이 신앙이 된 세상에서 그는 재산이란 사회의 것이지만 개인의 것이 아리라고 믿는다. 시시하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2부 '분노하라 저항하라'에서는 "세상은 늘 뼈뺀 사람, 영똥한 사람, 골 아픈 사람이 개척해왔다"며 방향을 겁내지 마라고 전한다.

3부 '비틀거리며 살아왔지만'은 그의 육성으로 듣는 일대기다. 백나청·남재희·리영희·이우환 등 지인들과 함께 한 일화들이 담겼다.

〈비아북·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

## 새로 나온 책

▲초목전쟁=서양 열강의 중국 침탈기인 19세기에 영국과 중국이 벌인 '초목전쟁' 이야기.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화한 뒤 그곳에서 아편을 만들어 중국에 팔았다. 그러다가 이 불법 행위를 통제하려는 중국과 충돌해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책은 식물 채집자이자와 스파이를 겸해야 했던 로버트 포턴(1812~1880)을 파견해 차나무를 빼내오는 데 성공한 뒤 차 재배가 정착하면서 영국이 흥起的 나라가 되기까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산처럼·1만5000원〉

▲파르헤지아 디자인을 말한다=관록 있는 디자이너들이 모여 만든 '리코드(한국디자인연구소)'의 세 번째 비평서. 제대로 된 디자인 철학을 세우는 것이 절실한 요즘, 디자인을 오래 공부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온 사람들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디자인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책은 온갖 개념과 결합돼 무의미한 조어 생산에 일조하며 죽어가고 있는 '디자인'을 살리려면 제대로 된 디자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두성북스·1만5000원〉

## 어린이 책

▲한국사 사전(전 3권)=역사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만든 어린이 한국사 사전. 1권은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를 담았고, 2권은 역사적 사건·문화와 사상을 그렸다. 3권은 나라와 민족, 기구와 단체, 역사 인물을 수록했다. 최근의 한국사 연구 성과를 반영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책과함께어린이·6만원〉



▲만해, 그날들=만해의 눈과 귀로 쓴 만해 평전. 만해에게 그의 날들은 어떤 날들이었을까. 한 사람의 생애는 그만의 삶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과정의 정치 사회적 격동기의 지층들이 압축적으로 그려져 있다. 러일전쟁과 정일전쟁 당시 조선의 내부사정, 한일병합 전후의 속사정,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 사할령, 만

해 피격사건, 동학운동, 3·1운동 전후의 사정 등이 만해의 눈을 통해 박진감 있게 묘사한다.

▲민주주의의 수수께끼=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가장 민주주의적인 해설서. 저자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2500년 전 희랍의 대담히 지역 특수적인 난국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치유책으로 시작되어, 열화외도 같이 번성했다가, 다시 근 2000년 동안 거의 모든 곳에서 사라져 버렸는지를 보여 준다. 또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살아나서 근대 정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는지를 들려준다.

〈후마니타스·1만8000원〉



▲할아버지는 바람 속에 있다=볼로냐 라가차상 수상 작가 에릭 휘바레가 그림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책. 손자에게 고하는 할아버지의 작별 인사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한국 역사를 통해 배우는 한국 고사성어=고사성어는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 전설, 문학 작품 등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짙은 몇 글자로 압축돼 오늘까지 맥이 이어진 말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사' 등 우리나라의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유용한 성어를 뽑아 책으로 엮었다. 한자 학습은 물론 우리나라 역사를 총망라한 탐구하며 역사적 교양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래문화사·1만5000원〉

▲몸의 심리학="살을 바꾸려면 몸을 바꿔라 한다. 몸을 바꾸려면 맘을 바꿔라 한다. 인간은 몸이면서 몸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책은 인간을 에너지 차원에서 이해하는 동서고금의 지혜를 통합해 내 몸속에 각인된 신경회로의 상처들을 치유하도록 돕는다. 또 각 장기와 관련된 스트레스 혹은 만성질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정신세계사·2만2000원〉

▲아름다운 사람들·각 권 1만1000원

▲날아라, 백백아! =생태 동화작가 권오준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야생 오리를 입양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기까지 1년 남짓 동안의 범상치 않은 풍경을 동화로 엮었다. 이야기를 통해 동물과 사람과의 따뜻한 교감, 흰뺨검둥오리에 대한 생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새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파란자전거·9800원〉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